

Part 1 — 돈의 종말

회차 도입 — 종이 화폐 다음의 왕좌는 누가 차지하는가

· 정리 2026-05-08

회차 도입 — 종이 화폐 다음의 왕좌는 누가 차지하는가

Part 1 「돈의 종말」을 마무리하는 5강은 그동안 미뤄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한다. 종이 달러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 다음 왕좌는 누구의 것인가. 인류 역사에서 화폐가 타락한 시기에 사람들이 몰물고환 시대로 회귀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기존 화폐의 물락은 늘 더 신뢰할 수 있는 새 화폐로 진화의 촉매로 작동했다. 로마 제국에서 달러 M2가 폭증해 더 이상 화폐의 가치가 추락하자 금과 솔리두스가 절대 가치를 인정받았고,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의 막대한 자금 투입으로 달러 M2가 계속해 더 이상 금으로 교환할 수 없게 되자 달러는 피아트 머니라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했다. 그러나 그 종이돈의 시대 역시 2008년과 2020년 위기로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았다.

이 회차의 결론은 분명하다. **시장과 중앙은행은 이미 첫 번째 후보에 손을 들어줬다 — 금이다.** 그리고 한국 청자에게 짚어주는 별개의 메시지: **달러가 무너져도 원화로 돌아갈 자리는 없다.** 원화가 더 빠른 속도로 타락하기 때문이다.

1. 종이 달러의 자리를 채울 4개 후보

후보	정체성	핵심 강점
신뢰의 후보 — 금	4천 년간 부도 0회	우주 채굴·함성 모두 비용 비현실
통제의 후보 — CBDC	국가가 모든 거래를 감시·통제	Programmable Coin (조건 프로그래밍 가능)
에너지 후보 — 전력	AI-첨단 문명을 움직이는 진짜 힘	일본 머스크가 강력 주장
탈중앙 후보 — 코인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디지털 금	BRICS 발 탈중앙 스테이블 코인은 통제 어려움

네 후보 모두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고, 미래 화폐의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는 한 통화가 단독으로 군림하기보다 두세 개의 화폐가 공존하며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 로마 시대에 솔리두스와 늬무스가 한 시기 동안 공존했던 사례가 같은 결을 보여준다.

2. 달러 vs 원화 — 원화가 더 빨리 타락한다

회차가 짚는 첫 번째 한국 청자 메시지는 분명하다. 달러가 무너져도 원화로 도망갈 자리는 없다. 패권 통화의 물락은 10년에서 길게는 50년까지 걸리는 서서한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원화는 달러보다 훨씬 빠르게 가치를 잃을 구조적 약점을 갖고 있다.

지표	한국 vs 미국
경제 성장률	한국 < 미국
생산성 증가율	한국 < 미국
기준금리	한국 < 미국
최근 M2 증가 속도	한국 > 미국
가계부채	한국 > 미국

여기에 인구 소멸과 높은 수출 의존도가 추가로 원화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협한다. 한국 경제는 미국보다 규모가 작아 더 빠르게 성장해야 할에도 오히려 더 느리게 성장하고, 미국이 AI 혁명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동안 한국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더 취약한 경제임에도 더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낮아 자본 유출 압력이 크고, 통화량은 더 빠르게 늘어나며 가계부채는 더 무겁다. **달러가 타락해도 원화는 그보다 빠르게 타락한다 — 결과적으로 달러는 원화보다 훨씬 강한 자산으로 남는다.**

3. 첫 번째 후보 — 금의 귀환

3.1 2024년부터 폭주하는 금값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던 금값이 2024년부터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단순히 달러 가치 하락 신호를 넘어 **금-국제 금리의 역상관관계 자체가 깨지는 이상 현상**이 본격화했다.

3.2 2022년 분기점 — 연동성 붕괴

과거 수십 년간 미국 10년물 실질 금리가 떨어지면 금값이 올라가고 금리가 오르면 금값이 떨어지는 역의 상관관계가 유지됐다. 그러나 2022년부터 미국 금리가 올라가도 금값이 함께 상승하기 시작했다. **금이 달러로부터 독립적인 움직임용 보이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다.

분기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미국이 러시아 제재 과정에서 **달러를 무기화**하면서 달러 패권의 위상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3.3 러시아 외환 보유고 6,300억 달러의 운명

자산	결과
유로화 2,100억 달러	동결 (유럽 국제까지)
달러 1,000억 달러	동결 (민간 은행 예금까지)
위안화 800억 달러	유지 (중국 신뢰)
금 1,350억 달러	온전히 유지 (자국 금고 보관)

여기에 미국은 러시아를 SWIFT에서 퇴출시키는 초강수까지 두었다. 이 과정은 러시아에 분명한 걸론을 안겼다 — **‘믿을 수 있는 것은 금뿐이며, 자산책은 위안화’**. 이 인식은 러시아에서 끝나지 않고 글로벌 사우스 전체로 확산됐다.

3.4 종이금에서 실물금으로 — 러시아의 교훈

-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직후 영국 중앙은행에 보관해둔 러시아 금을 **전량 몰수당할** - 2014~2021년 러시아는 해외 보관 금을 모두 본토로 이동 (**2,500톤 이상**) - 2022년 1,350억 달러였던 자국 금 가치가 **2025년 3,700억 달러**로 상승 - 서방에 압류당한 금액 상쇄 이상

'**종이 금은 언제든 압류된다, 실물 금만 안전'**이라는 인식이 글로벌 사우스 전체로 확산됐다.

3.5 미국채 이탈 + 실물금 매입 — 입법 시점

- **2024년 4월** 미국 의회 **REPO 법안** 통과 (러시아 자산 몰수 합법화). †3 - **2025년 5월** 유럽 의회는 이자·수익 전용 법안 통과 (원금 몰수는 유로화 시스템 붕괴 우려로 차마 결정 못 함).

이 두 입법이 결정적이었다. 중국·인도·사우디·브라질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미국 국채는 언제든 동결될 수 있고 유럽 국채는 신뢰 어렵다**’고 판단해 미국채 비중을 줄이고 실물금 매입을 확대했다. 2024년 금값 폭동의 핵심 원인이다.

3.6 안전 자산의 순차적 붕괴

회차가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안전 자산 붕괴 3단계는 다음과 같다.

단계	시점	사건
1단계	2022년	미국 금리 인상에 일본이 따라가지 못해 엔화 50% 하락 + 2022-09 영국 트러스 쇼크(파운드가 폭락, 영국 최단기 총리 사임)
2단계	2024년	유로화·유럽 국제 물락 (프랑스 재정 적자 GDP 5.5% / 독일 다시 유럽의 병자 / 마크롱 재정 삭감 시도 국민 저항)
3단계	진행 중	미국 국제까지 흔들리는 중

엔화·파운드화는 안전 자산 경쟁에서 사실상 탈락했고, 2024년에는 유로화와 유럽 국제까지 신뢰가 흔들렸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보루였던 미국 국제까지 불안정해지고 있다.

3.7 마지막 결승전 — 美 국채 vs 금

회차가 가장 명확하게 짚는 변곡점이다.

시장 판단 (2022.1 ~ 2026.1,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 금값: **+156%** - TLT (미국 장기채 ETF): **-46%**

중앙은행 판단 (2025년 말 세계 중앙은행 자산): - 美 국채: **3.9조 달러** - 금: **5.3조 달러** ← 2025 Q3 사상 첫 역전 †1

미국 재정 상황은 점점 악화된다. 2025년 1.9조 달러 적자 + 9,800억 달러 이자 비용에서 2030년에는 2.5조 달러 적자 + 1.45조 달러 이자 비용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 이는 사실상 파산 영역에 가깝다. 트럼프의 BBB 법안(감세와 재정 지출 동시 추진)과 정부효율위(DOGE) 실패가 결정적으로 적자 흐름을 가속한다. 미국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결국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 부채 부담을 녹이는 방법뿐이며, 이는 곧 금값 상승 압력의 영구화를 의미한다.

3.8 금값이 떨어진다면 — 두 가지 시나리오

1. **미국 정부와 연준이 적정하고 금값을 떨어뜨리는 경우** — 가능하지만 그 자체가 다른 국가들에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 2. **심각한 경기 침체** — 2008년처럼 생계를 위해 금을 매도하는 사람이 늘면서 일시적으로 25% 정도 하락 가능. 다만 회복이 빠른 영역이다.

3.9 왜 은(Silver)은 사지 않을까

회차는 한 가지 의문을 짚는다 — 중앙은행은 금만 편애한다. 은은 거의 사지 않는다. 이유는 세 가지다.

이유	설명
운송·보관	1트로이 온스 금 4,600달러 vs 은 90달러. 100억 달러어치 금은 트럭 3대(68톤), 은은 트럭 ~150대(3,460톤)
시가총액	금 32조 달러 vs 은 4.7조 달러. 중앙은행이 경쟁 매입하면 은값 10배 폭동 가능
산업 소모	AI-첨단 우주·첨단 무기 핵심 소재. 가치 저창 vs 산업 수요 충돌

다만 후술하듯 은은 에너지 화폐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별도로 있다.

4. 두 번째 후보 — CBDC

4.1 Programmable Coin

기존 종이돈과의 결정적 차이는 '프로그래밍 가능성'에 있다.

기능	효과
강제 소비	유료기간 설정 → 기간 내 소비 강제 → 경기부양
자산도피 차단	사용처 제한 (식료품 OK, 달러·금 매입 X)
저축 억제	마이너스 금리 적용 → 매달 1% 삭감 → 지출 강제

4.2 무서운 점과 반대론자

CBDC는 국가(중앙은행)가 모든 거래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 특정 개인의 언제·어디서·무엇을 샀는지 상세히 파악 가능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빛을 녹이기도 쉬워진다. 반대론자도 분명하다 — 트럼프파와 미국 공화파, 미국 시중은행, 그리고 독일·프랑스 등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일반 국민과 시중은행이 CBDC에 강하게 반대한다.

4.3 도입 적국 국가와 3 블록

가장 적극적인 곳은 **중국 인민은행** (국가 통제력 강화 도구)이고, 그 다음이 **한국은행**(이창용 총재가 "노인·아동 수당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추적 가능"을 명분으로 제시. 그러나 본질은 모든 금융 거래 데이터가 한국은행 디지털 원장에 기록되는 빅 브라더 사회).

회차는 CBDC가 만들어낼 세계를 3 블록으로 정리한다.

블록	국가	정책
레드 블록 (권위주의)	중국·러시아·BRICS·사우디	CBDC 표준화 + 반세계 감시 + 미국 달러 체제 회피
블루 블록 (자유진영)	미국·영국·캐나다·일본	CBDC 대신 스테이블 코인 (블록록·서클·JP모건). 국가는 심판만
중간 지대	한국·유럽	정부는 CBDC 원하지만 국민 반대. CBDC-스테이블 코인·종이 화폐 사이 모색

미국에서 CBDC 부정 여론이 강한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은행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태도도 한층 꺾인 상황이다. **CBDC 단독 도입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는 흐름**이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는 2026년 4월 시가총액 사상 최고치 \$321B에 도달했고, USDT \$189.5B / USDC \$77.1B 구도가 형성됐다. †2

5. 세 번째 후보 — 에너지 화폐

5.1 일론 머스크의 주장과 헨리 포드의 원조

일론 머스크는 "AI-첨단 문명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금이 아니라 에너지"라고 주장한다. 화석에서 금은 단순한 돌덩어지만 에너지는 생존 필수다. 실제로 원조는 자동차 왕 헨리 포드다. 1킬로와트시(kWh) = 10센트도 정해 모든 가치를 에너지 단위로 환산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5.2 치명적 약점 — 전력은 썩는다

화폐의 3대 기능 중 에너지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다.

- **✓ 가치 척도** — OK - **X 거래 수단** — 송전 시 저항으로 손실 (1kWh → 0.9kWh) - **X 가치 저장** — 배터리 자전 분진. 100kWh 10년 후 거의 X (엔트로피 법칙)

→ 에너지를 안정적 가치로 변환하려면 **디지털 연금술(Tokenization)**이 필요하다. 헨리 포드 시대엔 불가능했지만, 블록체인·토큰화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는 실현 가능 영역에 접어들었다.

5.3 디지털 연금술 3 모델 — 모두 한계

모델	주장자	한계
① 비트코인 (영여 전력 채굴)	일론 머스크	비가역적 — 비트코인 → 에너지 교환 보장 없음. '에너지를 썼다는 증거'일 뿐
② 토큰화된 전력망 / 가상 발전소 (테슬라 + 파워월)	일론 머스크	송전망 업그레이드에 수조 달러. 그리션의 저주 + 낮은 전력량. 토코는 팔았는데 에너지 전송 안 됨
③ 컴퓨팅 파워 토큰화 (H100 GPU 1시간 사용권)	샘 올트먼 류	GPU 감가상각 3~7년. 가치 하락 자산은 화폐로 부적합. 빅테크 외 일반 대중 일상 거래 부적합

세 모델 모두 한계가 분명하다. 본격적인 에너지 화폐가 등장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다른 자산이 다리를 놓을 것이다.

6. 과도기 후보 — 메탈·우라늄·은

후보	역할	한계
리튬·니켈	에너지를 담는 '그릇' (배터리 핵심 소재)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회적 합의 부족
은·구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 (태양광·전기차·AI 핵심)	(은은 별도 강점, 후술)
우라늄	가장 밀도 높은 압축 에너지 (발전용)	방사성 → 저장·관리 고도 기술·비용 필요. 보편적 화폐 시간 더 필요

7. 은(Silver) 부각 3가지 이유

회차는 과도기 후보 중에서도 은을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짚는다. 이유는 세 가지다.

1. **역사적 익숙함** — 은은 4천 년 동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됐다. 갑자기 리튬·니켈로 가면 심리적 저항이 크다. 은의 동전 역사가 있지만 항상 금·은 아래였다. 은은 금과 함께 귀속속 화폐의 지위를 누려왔다. 2. **적절한 희소성** — 구리는 매장량이 너무 풍부해 화폐로 쓰기 어렵고 보관에 막대한 공간이 필요하다. 은은 금보다는 흔하지만 구리보다 훨씬 희소하다. 3. **대체 불가능성** — 배터리 소재 기술은 계속 발전하지만, 은의 핵심 가치인 '**전기 전도율**'은 **인류가 발견한 모든 물질 중 1위**다. 미래 산업에서 은의 가치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 에너지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은이 에너지를 대표하는 자산으로 활약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다만 회차는 동시에 신중함도 짚는다 — 최근 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어 정규 교육 과정만으로는 시의성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외부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 은 가격은 2026년 1월 약 \$95에서 4월 \$73.58로 22% 하락했고, 6년 연속 구조적 공급 부족이 지속되며 산업 수요가 700Moz에 달한다. †4

8. 향후 강연 계획

회차는 마무리에서 후속 시리즈 안내를 명확히 한다.

- **은은 '실물경제의 부활'** 파트에서 집중 분석 예정 - **코인은 '디지털 자산 혁명'** 파트에서 집중 분석 예정 (5강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음) - 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어 정규 교육 과정만으로는 시의성이 부족할 우려가 있어, **박종준의 경제 로드맵 특특반 + 지식 한방** 콘텐츠를 통해 은 심층 분석을 별도 제공할 예정

9. 회차의 결론적 메시지

본 회차가 한국 청자에게 남기는 핵심 메시지는 두 줄로 압축된다.

1. **달러보다 원화가 더 빨리 타락한다** — 5축(성장률·생산성·금리·M2·가계부채) 모두 원화 약세 신호 + 인구 소멸 + 수출 의존도. 달러가 무너져도 원화로 도망갈 자리는 없다. 2. **금이 첫 번째 후보로 굳어졌다** — 시장(금 +156%, TLT -46%) + 중앙은행(美 국채 3.9조 < 금 5.3조 사상 첫 역전) 양쪽 모두 같은 결론. 단순 분산이 아니라 안전 자산의 결승전이 끝났다는 신호.

CBDC는 자유 진영의 스테이블 코인 흐름과 미국 부정 여론으로 단독 도입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는 중이다. 다만 한국은행이 여전히 의지를 보이는 만큼 빅 브라더 우려는 살아 있다. 에너지 화폐는 엔트로피·송전망·감가상각 한계로 가까운 시일에 어렵고, 그 사이 메탈·우라늄·은이 다리를 놓을 가능성이 크며 그중 은이 가장 유력한 과도기 후보로 부각된다.

ONE LIFE	
안전 자산의 결승전이 끝났다 — 시장과 중앙은행이 같은 답을 내놨다.	

회차 자료 보강	
-----------------	--

본 회차의 핵심 메시지에 새로운 시각을 더하기 위해 외부 4건을 인용했다. 각 자료는 강의가 멈춘 시점에서 한 달(시간 연장), 다른 측면(각도 확장), 또는 회차 명제의 후속 검증(검증·반박 / 사례 후속) 패러다임으로 매핑된다.

†1 시간 연장 — 30년 만의 사상 첫 역전, 그 후

회차가 인용한 '**2025년 말 세계 중앙은행 자산 美 국채 3.9조 < 금 5.3조 사상 첫 역전**'의 정밀 검증과 그 후. Visual Capitalist의 World Gold Council 데이터에 따르면 은은 **1996년 이래 약 30년 만의 역전**으로, 회차의 '사실 셋'이라는 표현을 더 정밀하게 보면 '한 세대 만의 변곡점'이다. 2025년 3분기만 중앙은행은 **219.9톤**을 매입(QoQ +28%), 글로벌 중앙은행 보유에서 미국 **GENIUS Act**(2025년 상원 통과 → 2026년 시행 단계). 이 법안은 모든 스테이블 코인을 1:1 reserve(미국채 또는 현금성 자산)와 라이선스 검증한다 — USDC는 이미 EU MiCA의 EMT 기준을 충족하기에 GENIUS Act(이창용 총재가 가장 수월하지만, USDT는 reserve 투명성 문제로 미국 시장 가시성 실질적 장애를 마주한다. 회차의 '국가는 심판만 보고 민간 발행자가 운명하'는 '블루 블록 그림이 정량 통제로 확증된다.

- Visual Capitalist, "Central Banks Now Hold More Gold Than U.S. Treasuries" — visualcapitalist.com/central-banks-now-hold-more-gold-than-u-s-treasuries/ - WisdomTree, "Central Banks, Gold and the Shifting Foundation of Reserves" (2025-09-23) - Bullion Trading LLC, "Q3 2025 Demand Analysis Reveals Strategic Institutional Accumulation"

†2 각도 확장 — 스테이블 코인이 정량화한 블루 블록

회차가 짚은 '**블루 블록 — CBDC 대신 스테이블 코인 (블록록·서클·JP모건)**' 명제에 정량 데이터를 더한다. 2026년 4월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인 **\$321B**에 도달했다. **결제(USDT) \$189.5B**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지만 **Circle(USDC) \$77.1B**가 빠르게 추격 중이며, USDC 공급량은 2023년 말 이후 **220% 증가**했다. 결정적 변수는 미국 **GENIUS Act**(2025년 상원 통과 → 2026년 시행 단계). 이 법안은 모든 스테이블 코인에 1:1 reserve(미국채 또는 현금성 자산)와 라이선스 검증한다 — USDC는 이미 EU MiCA의 EMT 기준을 충족하기에 GENIUS Act(이창용 총재가 가장 수월하지만, USDT는 reserve 투명성 문제로 미국 시장 가시성 실질적 장애를 마주한다. 회차의 '국가는 심판만 보고 민간 발행자가 운명하'는 '블루 블록 그림이 정량 통제로 확증된다.

- Outlook India, "Central Banks Act: Impact of the US Legislation on Permitted Stablecoins" — paySPACE Magazine, "Circle and Tether at the Epicenter of U.S. Stablecoin Act 2026" - Stablecoin Insider, "April 2026 Stablecoin Report"

†3 가격 추속 — REPO Act → EU 2025-12 무기한 동결

회차가 인용한 '**2024년 4월 미국 의회 REPO 법안 통과 + 2025년 5월 유럽 의회 이자·수익 전용 법안 통과**'의 그 후. 미국 채권 시장이 흔들렸지만 실제 매입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 미국 관원권 안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모두 그대로. 그러나 EU는 2025년 12월 12일 더 큰 결단을 내렸다. —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기로 결정해 6개월 갹신 요건을 폐지하고 헝가리의 거부권 위임을 무력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EU는 2026~2027년에 걸쳐 **€1658(약 \$175B)** 규모의 우크라이나 reparations loan을 추진 중이다. Euroclear의 동결 자산 수익은 2024년 €68에 달했고 그중 €58가 우크라이나로 송금됐다 — 다만 2025년 1~3분기에는 25% 감소했다. 회차의 '유럽이 원금 줄수는 차마 못 했다'는 진단은 정확하지만, '**영구 동결 + 이자 수익 100% 활용**'으로 전환'된 것이 그 후의 정밀 정보다. 글로벌 사우스가 미국채·유럽 국제를 떠나 실물 금으로 향하는 동기는 회차 시점 이후에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

- European Council, "Immobilised Russian assets" (2025-12-12) - Brookings, "What is the status of Russia's frozen sovereign assets?" - Congress.gov, CRS Insight IN12532, "Russia's Central Bank Assets"

†4 검증·반박 — 은의 변동성과 산업 수요 nuance

회차의 마지막 메시지 '**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어 시의성이 부족할 우려**'의 정밀 검증. 은 가격은 2026년 1월 약 \$95(역사적 고점)에서 4월 13일 약 **\$73.58**까지 22% 하락했다 — 회차가 짚은 변동성이 외부 데이터로 명확히 확인된다. 다만 구조적 펀더멘털은 견고하다. Silver Institute는 2026년 말 이후 **공급 부족(67Moz)**이라고 진단했고, 산업 수요(태양광·EV·시 데이터 센터·반도체)는 약 **700Moz**에 달한다. 중국은 2026년 1월부터 은 수출 라이선스를 강화해 글로벌 물리적 공급을 더 압박했다. 가격 전망은 J.P.Morgan \$81/oz·UBS \$100·Bank of America 메이스 \$135/oz까지 분포가 넓다. 그러나 한 가지 통찰이 있다 — **중국 태양광 업체(Longi-Jinko)가 은 대신 구리로 back-contact cen**을 대체하는 **흐름**이 본격화되며 태양광 수요는 YoY -7%(194Moz)로 줄어든 반면에 전력이다. 회차의 '은은 미래 핵심'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산업 수요 한 축은 기술 대체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는 nuance가 추가된다.

- UniAthens, "The 2026 Silver Squeeze: How Solar, EVs, and AI are Draining Global Supply" - Carbon Credits, "Silver in 2026 and Beyond: Rising Prices, Solar Substitution, and a Market Still in Deficit" - Silver Institute, "Global Silver Investment to Remain Strong in 2026"

> 본 정리는 박종준의 경제 로드맵 Part 1 — 돈의 종말, 5강 「돈의 미래, 누가 왕관을 차지할 것인가?」 (2026-01-29 게시) 정규강의 정리본을 베이스로 작성했다. 외부 자료는 †1~†4로 표기한 회차 자료 보강을 통해 강의 본문과 시각적으로 구분된다. 본 회차의 메시지는 분석과 진단 중심이며, 별도의 액션 가이드를 강제하지 않는다 — 회차가 짚는 가치 저장(금)과 원화 강도 비교는 모니터링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료 출처:

· 정리 · content-forgie · 2026-05-08